

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13]

冬土와荊棘의세월

1943년 3월말경 어느날 새벽 5시경 일제 관 동군 헌병대의 수사관들이 불시에 영신농장으로 들이닥쳐 김봉년과 어머니 권애라를 체포하였다. 모자는 일본 헌병대에 구속되었다가 그 수사관들이 타고온 트럭에 실려 길림시 吉林省의 상급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길림시 헌병대에서 간단한 심문을 받은 뒤 그들은 다시 열차편으로 호송되어 두 시간 뒤 간도역間島驛에 닿았다. 당시의 간도역은 지금의 연변역이었다. 간도역에 도착하고서는 모자를 각기 분리시켜 대기중이던 택시에 승차시키고 검은 자루를 머리에 씌워 방향 감각을 모르게 하여 30분쯤 달렸다. 그리고는 어떤 비밀 감옥에 도착하여 감방에 넣고 끓여 앉힌 후에야 머리의 검은 자루를 벗겼다. 이윽고 정신을 차려 보니 하늘과 빛이 안보이는 곳이었다. 이 비밀감옥에 수감된 뒤에야 김봉년은 이윽고 길림성과 연변·심양瀋陽 지역에서 그 부친 김시현이 주도한 독립군 조직결사에 가담한 인물 70여명이 일망타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조사가 시작되던 처음 1주일 동안은 아침저녁으로 보리밥을 하루 두 끼씩 주었다. 초도심문이 끝난 1주일 후부터는 고량高粱, 즉 수수 삶은 것을 조식으로 한 공기씩 급식하여 굶주리게 하였다. 그리고는 1주일째 두 차례씩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두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채 공중에 매다는 비행기 고문에 고춧가루를 주전자물에 타 콧구멍에 붓는 등 악랄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김봉년으로서 고문보다 더 큰 고통은 23세의 젊은 나이로 하루 두 공기씩의 수수밥으로 목숨

을 이어가는 주림이었다. 어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골은 피골이 상접한 데에 눈동자와 코만 남아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김봉년은 이 비밀감옥에 6개월여를 갇혀 있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이 비밀감옥은 독방으로 설계되었는데 워낙 협소하여 한 사람이 들어앉으면 번기를 놓을 공간이 없어 변소만은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었다. 김봉년은 변소에 갔다가 우연히 모친이 친필로 기둥에 ‘봉년아, 잘 있느냐, 어미도 잘 있다’고 쓴 글씨를 보고서야 어머니가 같은 감옥에 생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기회를 타 철사문을 구해 가지고 그 변소에 가서는 어머니의 글씨 옆에 ‘봉년이 잘 있습니다’고 굵어 써 놓고 나왔다. 1943년 10월 초순 그렇게 비밀감옥에서 반년여 세월이 지난 어느날 수사관이 감방에 다가와 신경형무소新京刑務所로 이감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튿날 각자에게 검은 자루를 뒤집어 씌워 택시편으로 연변역까지 데려가서는 역에서 자루를 벗기고 대기 중인 호송열차에 태웠다. 신경, 즉 장춘長春형무소에 도착하여 입감수속을 마친 김봉년은 죄수번호 1207번이 가슴에 부착된 수의囚衣로 갈아입고 배정된 감방에 들어가고 보니 연변의 비밀감옥에 비해 이곳은 무슨 호텔방으로 착각할만한 별천지였다. 우선 창문으로 하늘과 햇빛을 볼 수 있고 맑은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다. 1943년 11월 초순 장춘형무소에 이감된 지 한 달쯤 지나 신경고등검찰청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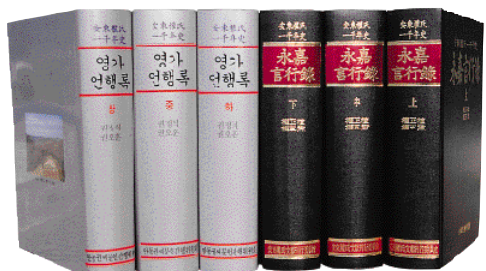
京高等檢察廳에서 출두통지가 나왔다. 그는 검찰청에 불려가 사상담당 일본인 편강片岡 부장검사의 심문을 받게 되었다. 편강 부장검사는 심문을 시작하면서부터 피고를 멸시하는 태도와 언사를 썼다. 김봉년이 이에 강력히 항거하며 ‘일본인답게 점잖게 심문하라’고 대들자 편강 부장검사가 얼굴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심문기간 중에 편강 검사는 김봉년에게 생일이 내일이라면서 양식洋食 한 그릇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1944년 5월 중순 김봉년은 어머니 권애라와 함께 ‘조선독립군의 조직결사 및 항일지하운동 조직 사건’ 피의자로 만주국 고등법원에 기소되었다. 죄목은 일본국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이었다. 편강검사는 신경고등법원의 비공개 법정에서 김봉년에게 12년 징역을 구형하였다. 1944년 6월 중순 신경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비공개법정에서 피고 김봉년에게 구형대로 12년형을 선고했는데 동시에 그 모친 권애라에게도 12년형을 똑같이 선고했다. 이때 권애라는 자식에게 죄가 없는데 모자에게 이렇게 중형을 같이 내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봉년의 12년형까지 합친 24년을 복역할 테니 아들은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선고공판문서에 서명과 무날인捺捺印을 거부했다. 이 일이 당시 형무소내의 화제가 되었고 재판장은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해 한 달 가까이 애를 먹었다. 이때 형무소에서는 좁쌀을 다식판처럼 찍어 만든 5등밥을 급식했으며 권애라는 여사女

숨에서 복역중 중병을 앓아 피골이 상접했는데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중국여성 오원향吳媛香을 수양녀로 삼은 덕에 그 수발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였다. 1945년 8월 9일 새벽 3시경 느닷없이 전투폭격기의 폭음에 놀라 잠을 깨는 순간 형무소 중심부에 고성능 폭탄이 투하되어 굉음과 함께 감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붕과 천장이 붕괴된 감방에서 흙더미와 먼지에 싸여 숨이 막혔다. 소련전폭기의 공격이었다. 세 시간쯤 지나 날이 밝자 간수들은 완전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안면이 익은 중국인 간수가 다가와 ‘모친건강母親健康’이라고 어머니의 안부를 전하고 또 ‘동소련방動蘇聯邦’이라고 소련군이 진격중이라는 귀뜸을 해 주었다. 중병을 앓을 때 권애라는 중국인 수양녀 오원향이 구처해 준 환약 한 알을 받았는데 이를 먹지 않고 아들 김봉년에게 주려고 간직했다. 1945년 8월 13일 형무소 내부가 파괴되어 마비상태가 되었으므로 형무소 당국은 우선 일반죄수는 전원 석방하였다. 세계 전사상戰史上 형무소가 공습을 받은 것은 장춘형무소가 처음이라고 지상에 보도되었다. 장춘형무소는 장춘시 사마로四馬路 청사호通淸寺湖通 13번지에 있었는데 15미터폭의 길건너에 만주국滿洲國의 부의傳儀 황제가 거처하던 황궁皇宮이 있어 소련군 전폭기가 이를 공습한다는 것이 형무소를 오폭하였던 것이다. 조식이 끝나고 아침 10시경이 되자 2인1조로 수갑 하나에 두 사람씩을 엮어 길림형무소 吉林省刑務所로 이감시킨다 했다. 이때 석방되지 못한 사상범죄수는 중국인 80여명과 조선인 40여명으로 도무 120명 가량이었다. 전란중이라 열차운행도 중단되고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어 도보행군으로 이감한다는 것이었다. 일인 형무소

장 이하 150여명 간수는 완전무장을 하고 국도로 행렬을 이루어 이송하였다. 행렬은 복역으로 형체만 남은 허약자가 많아 종일 행군에 겨우 5킬로미터를 이동하였다. 석양에 이르러 형무소장은 갑자기 대오를 반월형으로 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집합할 것을 지시하고 간수들은 50미터쯤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라 하였다. 그런 다음 형무소장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김봉년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열었다. “나는 전옥典獄 재등齋藤입니다. 나는 대일본제국 법무省法務省 관리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갈망하던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형무소장은 목이 메어 잘 말을 잊지 못하며 이와 같은 고별사를 하고 그 직권으로 죄수들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형무소장은 먼저 김봉년의 수갑을 풀어주고 자기가 차고 있던 권총과 열쇠꾸러미가 달린 혁대를 풀어 넘겨주었다. 이에 김봉년은 그 권총과 열쇠꾸러미를 받아 허리에 차고 재등형무소장과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로써 김봉년과 권애라는 120여명 죄수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김봉년의 증언 내용에는 연월일과 장소가 정확히 나와 있어 권애라와 그 아들 모자의 해방 직전 몇해 동안의 행적을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권애라와 김봉년 모자는 1942년 9월 하순 길림성 영길현의 영신농장에 도착해 활동을 하다가 1943년 3월말에 체포되어 길림시 헌병대 감옥을 거쳐 장춘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이틀 앞둔 13일 석양에 장춘에서 길림으로 가는 국도 5킬로미터 지점 교외에서 극적으로 석방된다. 그런데 이종률의 전기에서 김시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 부분에 대한 기술내용은 또한 차이가 있다. 이종률의 기술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오늘날 貴宅은 家庭教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永嘉言行錄



一舉에 망라 昭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 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 詩文과金石文·狀記文 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0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 장의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충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權正植·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 원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